

“일본 자본 먹튀 막고 공장 지킨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경북권 결의대회 ... “공장사수투쟁 후회 없다. 연대해달라”

경북·대구의 금속 노동자들이 자본의 일방 청산 시도에 맞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거센 폭우를 뚫고 구미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금속노조 구미, 포항, 경주, 대구지부 등 경북·대구권 지부들이 7월 7일 오후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경북본부·금속노조 경북권 결의대회’를 벌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직 연대의 마음으로 350여 명의 노동자가 경북 각지에서 모였다.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대회 일정을 잡아놓고 비 걱정하며, 지난 사흘 내내 일기 예보만 봤다”라며 “막상 비가 오니 비 맞으면 또 어쩌냐 싶다. 이비를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동지들께 고맙다는 말부터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김준일 지부장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구조조정에서 니토덴코 자본의 여러 가지 나쁜 행태를 봤기 때문에 이번 화재 때도 우려를 많이 했다”라면서 “단 한 명을 동지라도 남아 투쟁한다면 구미지부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현재 열세 명의 투사가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열균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문체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 회사에 20대 시절 모든 걸 바쳤으나, 화재 사고가 나자 자본은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한다”라며 “사람을 쓰다 버리는 부품 취급하는 회사에 정말 화가 많아서 투쟁을 시작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열균 부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면서 “10월에 결혼할 예비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받았다. 지금 내 옆의 소중한

동지들과 서로 밀고 끌어주며 끝까지 가보고 싶다. 결혼과 투쟁 다 성공하겠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행진 후 공장 앞에서 이어간 마무리 집회 투쟁사에서 “동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공장동이 화재 사고로 전소했다”라며 “공장 재건축 비용이 1,000억 원이

고 보험으로 1,300억 원의 화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본은 사업성이 없다며 청산 계획을 발표했다” 라고 분노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일본 먹튀기업 니토 자본을 용서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이 투쟁을 결의했다” 라면서 “부당해고 등에 관한 7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본은 퇴거 압박을 시작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구미공장 사수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라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최현환 지회장은 “이 싸움은 조합원 열세 명과 전국의 연대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며 “구미공장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해달라. 동지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003년 구미산단에 입주해 2017년 매출 7,843억 원을 달성했으나,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자본은 일방 청산 계획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이후 지금까지 아홉 달째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구미지부는 “니토덴코 자본은 1,3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있는데도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청산을 결정했다” 라면서 “모든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열세 명이 공장에 남아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걸고,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니토덴코 자본이 공장 강제철거 계획을 발표 했지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구미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